

중부매일

HOME > 정치 > 의회·정당

청양군의회-한국농어촌공사, 알프스마을 현장답사

이병인 기자 | 승인 2021.09.13 10:22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청양군(군수 김돈곤)으로부터 위탁받아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청양군의회(의장 최의환)는 제275회 임시회기중에 청양군 주요사업장 답사의 일환으로 청양군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을 답사한 청양군의회 최의환 의장을 비롯한 청양군의회 위원들은 연간 3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지역개발사업의 충남대표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알프스마을의 조롱박 축제와 마을주변 산책로 시설물의 안전성여부 등을 살피면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및 대안제시 등을 현장점검 했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사업비 24억5천600만원)은 그동안 단절된 천장호 수변산책로를 알프스마을로 연결하고 주차장 및 구름다리등을 설치하여 연간 70만명의 천장호 출렁다리 방문객을 알프스마을로 유입하여 '청양 알프스마을'을 관광거점화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모사업에서 2018년 최종사업지구로 당당하게 선정되었다.

김남표 청양지사는 "청양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농촌관광 인프라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도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청양지역을 더 많이 찾고 즐길수 있는 휴양공간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인 기자



인쇄하기



인쇄

HOME (/) > 종합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 > 사회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9)

청양군의의회·한국농어촌공사 알프스마을 현장답사

최태숙 기자 |
 승인 2021.09.13 11:05

[투데이충남 청양 최태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청양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청양군의의회에서는 9월 10일 제275회 임시회기중에 청양군 주요사업장 답사의 일환으로 청양군 의원 7명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한채 이날 현장을 답사한 청양군의 회 최의환 의장을 비롯한 청양군의회 위원들은 연간 3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지역개발사업의 충남대표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알프스마을의 조롱박 축제와 마을주변 산책로 시설물의 안전성여부 등을 살피면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및 대안제시 등 청양군의회 역할에 충실했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사업비 2456백만원)은 그동안 단절된 천장호 수변산책로를 알프스마을로 연결하고 주차장 및 구름다리등을 설치해 연간 70만명의 천장호 출렁다리 방문객을 알프스마을로 유입하여 “청양알프스마을”을 관광거점화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공사사업에서 2018년 최종사업지구로 당당하게 선정됐다.

김남표 청양지사장은 ‘청양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농촌관광 인프라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도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청양지역을 더 많이 찾고 즐길수 있는 휴양공간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충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태숙 기자 기자

인쇄

청양군의회·한국농어촌공사 알프스마을 현장답사

기사입력시간 : 2021/09/13 [11:09:00]

최태숙

[우리들뉴스 청양 최태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는 청양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청양군의회에서는 9월 10일 제275회 임시회기중에 청양군 주요사업장 답사의 일환으로 청양군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한채 이날 현장을 답사한 청양군의회 최의환 의장을 비롯한 청양군의회 위원들은 연간 3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지역개발사업의 충남대표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알프스마을의 조롱박 축제와 마을주변 산책로 시설물의 안전성여부 등을 살피면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및 대안제시 등 청양군의회 역할에 충실했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사업비 2456백만원)’은 그동안 단절된 천장호 수변산책로를 알프스마을로 연결하고 주차장 및 구름다리등을 설치해 연간 70만명의 천장호 출렁다리 방문객을 알프스마을로 유입해 “청양알프스마을”을 관광거점화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서 2018년 최종사업지구로 당당하게 선정됐다.

김남표 청양지사는 ‘청양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농촌관광 인프라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도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청양지역을 더 많이 찾고 즐길수 있는 휴양공간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HOME > 경제/건설/과학

청양군의의회·한국농어촌공사 알프스마을 현장답사

〇 최형순 기자 | 〇 승인 2021.09.13 10:24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청양군(군수 김돈곤)으로부터 위탁받아『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청양군의의회·한국농어촌공사 알프스마을 현장답사 모습

청양군의의회(의장 최의환)에서는 지난 10일 제275회 임시회기중에 청양군 주요사업장 답사의 일환으로 청양군의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 한채 이날 현장을 답사한 청양군의의회 최의환 의장을 비롯한 청양군의의회 위원들은 연간 3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지역개발사업의 충남대표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알프스마을의 조롱박 축제와 마을주변 산책로 시설물의 안전성여부 등을 살피면서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및 대안제시 등 청양군의의회 역할에 충실하였다.



청양군의회·한국농어촌공사 알프스마을 현장답사 모습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사업비 2,456백만원)』은 그동안 단절된 천장호 수변산책로를 알프스마을로 연결하고 주차장 및 구름다리등을 설치하여 연간 70만명의 천장호 출렁다리 방문객을 알프스마을로 유입하여 "청양알프스마을"을 관광거점화하는 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형모사업에서 2018년 최종사업지구로 당당하게 선정되었다.

김남표 청양지사는 '청양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농촌관광 인프라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도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청양지역을 더 많이 찾고 즐길수 있는 휴양공간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형순 기자